

# 무주에서 봄과 만나다

### '2018 봄 여행주간' 28일~5월 13일까지 운영

무주군이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2018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봄 여행주간에는 명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태권도원(설천면 무설로 1482 / 063-320-0114)은 무료입장과 더불어 숙박이 가능한 연수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주말에는 '전통놀이'와 '미션수행 게임', '봄봄봄 가족 캠프'를 진행한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설천면 무설로 1324 / 063-324-1155)은 입장료 20% 할인하며 5월 5일과 6일에는 '반디랜드와 사랑앓이'와 '봄봄봄 가족 캠프'를 진행한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설천면 무설로 1324 / 063-324-1155)은 입장료 20% 할인하며 5월 5일과 6일에는 '반디랜드와 사랑앓이'와 '봄봄봄 가족 캠프'를 진행한다.



무주군이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2018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반디랜드 전경

당은 "무주에 가득 찬 봄기운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봄 여행 주간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무주가 자랑하는 명소들이 특별 이벤트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즐거움과 시골의 맛을 볼 수 있다."

5월 22일까지는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준비한 '마을로 가는 봄 축제'도 함께 즐겨볼 수 있다. 마을별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과 시골의 맛을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창수 "찾아가는 소통과 경청투어" 선포

### 장수군수 예비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후보로 출마하는 김창수 예비후보(전 장수농협 조합장·사진)가 정책과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경청투어'를 시작한다.



김창수 후보는 24일부터 공식 선거 후보 등록 직전인 5월 23일까지 30일 동안의 '소통과 경청투어'를 통해서 장수군의 새로운 선거운동을 만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창수 후보가 준비한 소통과 경청투어의 콘텐트는 10대 정책과제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창수가 후보가 제시하는 10대 정책과제 중 실제로 준비된 것은 아홉 개 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현장을 돌면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후보가 일방적으로 군의 미래를 구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진정한

소통과 경청을 위해서 준비한 투어'라고 기획의 변을 밝혔다.

김창수 후보는 24일 장수읍 남산공원 혼혼담 참배를 기점으로 30일간의 '찾아가는 소통과 경청투어'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권·공정·문화관광·의료·교육·균형발전·교통·주거 등 9가지 테마를 가지고 각 3일씩 투어를 하면서 색깔 있는 정책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

투어 29일째인 5월22일(화)에는 장수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 번째 과제를 발표하고, 후보가 준비한 9대 과제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끝으로 '소통과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5월23일(수)은 '소통과 경청투어 리포트'를 군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더 이상 장수군수 선거가 정당공천과 지역주의의 늪에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직과 연고가 아닌,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호박고구마 사과나무 분양 신청 접수

진안군은 24일 호박고구마와 사과나무 분양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호박고구마는 미령면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에서 밭 13.2㎡를 4만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10월 준순증 수확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보급하는 호박고구마 품종인 '홍원미'는 향산화 효과와 당도가 높으며 맛이 좋다.

또한 동향면 천반산구리교를 정보화마을에서는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나무를 그루당 11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추석 전후에 수확하는 호로와 11월초에 수확하는 후기 두 종류로 가정용, 선물용으로 모두 인기가 많다.

농장주 이르면, 풀베기, 열매 숙이주기 등 분양부터 수확까지 농장에서 관리해주고 체험 당일 맛있는 시골음식과 마을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

진안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적용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유인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서류를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무주군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마련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 교구와 도서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회성과 신체·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상시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 회원 자녀 30명(각 프로그램 당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프로그램은 상반기(3월~6월)에 유아체조와 종이접기를 실시하며 하반기(6월~11월)에는 구연동화와 촉감놀이를 연령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광폭행보

### 정부세종청사 방문... 분야별 중점사업 건의

장수군이 24일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사업 건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안동환 부군수와 군 간부공무원 등 10명이 동행했으며 각 부처 관계자 면담을 통한 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오찬 시간을 활용해 군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건의사업으로는 장수~진안간 및 장수~천천간 국도개량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 기초생활 거점육성(계북·장계),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시설보완, 공공시설 내진성능 보강 공사 등 군민 안전확보와 지역 활력을 제고할 분야별 중점사업이 대상이었다.

앞으로 군은 부처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일제 출장을 지속 추진하고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6월부터는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해 그간 건의한 부처 예산안이 정상 반영 될 수 있도록 부처 항우공무원과 정치권 공제체계를 강화해 정부 예산 반영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 공모사업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지역자원 특화와 군을 발전시킬 우수 모델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비 공모사업 선정 위해 유근주 진안 부군수 발품 행정

진안군은 2019년도 착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3개 분야 5건을 신청하고 120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근주 진안부군수와 최방규 건설교통과장 등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진안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진안군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통합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읍면소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농촌의 유산 보전, 산림·하천

생태보전 등 농촌가치의 보전, 기초생활거점육성,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테마중심의 사업으로 해당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다.

진안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 평가를 마쳤으며, 9월경 발표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양성빈, 10일간 희망투어 완료

### 장수군수 예비후보

양성빈 장수군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10일간 걸친 장수군 도보횡단 선거운동과 현장 공약 발표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며 지계를 지고 장수군을 횡단했던 길을 다시 거꾸로 걸으면서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SNS로 공유하는 캠페인을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고 밝혔다.

계북면 원촌에서부터 번암면 수척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천천면, 장계면을 돌아 장수읍과 산서면을 거치는 330리(약 130km) 코스를 주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양 예비후보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지계도보 캠페인에 이어 다시 지계를 지고 장수 곳곳에서 준비된 정책공약을 매일 발표했다"며 "정

와대, 국회, 전북도에 쌓은 풍부한 인맥을 통해 장수군에 예산 대박을 터뜨리고 이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지계도보행군을 하는 동안 만나는 군민에게 명함과 함께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전파하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했다.

특히 '10개 희망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전문화로 안정된 소득보장 장수건설 ▲신소득 작목과 첨단영농 환경조성으로 돈과 사람 모이는 장수건설 ▲전통 시장 차별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활기찬 장수건설 ▲농특축산업과 역사를 결합한 신 관광거점 장수건설 ▲최고 인재 육성지원으로 꿈과 희망 있는 장수건설 ▲보육지원, 노후생활보장 대책 강화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장수건설 ▲환경과 주민생활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장수건설 ▲장애인, 다문화,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 따뜻한 장수건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걱정없는 장수건설 ▲책임 행정과 군민과의 소통강화로 책임군정 실현의 장수건설 등 10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